

이오플로우, 제2회 이오패치 사용자 모임 '이오패치 투게더링 in 부산' 성료

- ▶ 부산, 울산, 경남권 이오패치 사용자 네트워킹 행사 성황리에 마쳐
- ▶ 전국 각 지역 찾아가며 사용자와 소통의 장 마련할 것

[2023-04-13]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이오패치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오는 행사인 '이오패치 투게더링'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부산 서면에서 개최된 '이오패치 투게더링' 행사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70여 명의 이오패치 사용자와 보호자가 참석했다. 이오플로우는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인슐린 펌프 및 이오패치 사용에 대한 간단한 실습, 아이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 회사와 고객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사용자들이 각자의 치료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진행한 '제1회 이오패치 투게더링' 행사를 계기로 처음으로 사용자와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사용자가 많은 영남권에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향후 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용자 분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오플로우의 서종욱 마케팅 본부장은 "이오패치 투게더링은 우리 회사가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용자와 보호자를 여러 채널로 만날 예정이고 동시에 사용자 간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국내 당뇨병 의료기기 산업 내에서 고객 친화적인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오플로우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출시하며 스마트 당뇨관리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국내 직접판매 체제를 구축하고 빠르게 국내 사용자가 확대하고 있으며, 제품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안에 국내에 지역별 거점 병원을 90여 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오플로우는 현재 유럽, 중동, 인도네시아, 콜롬비아에서 각각 유통 파트너사와 이오패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지역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현재 제품을 판매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품목허가까지 완료했다.

중국도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판매를 위한 FDA 510(k) 신청도 완료했다. 인슐린 펌프 뿐 아니라 웨어러블 약물전달 플랫폼 비즈니스로도 신사업을 개척하고 있다.

※ 자료 문의: ir.pr@eoflow.com

※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참고사진]



[▲사진1] 이오파치 투게더링 행사장 전경



[▲사진2] 소아 및 청소년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오파치 꾸미기 챌린지를 진행했다. 완성된 작품은 이오플로우 본사 또는 곤지암 공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 자료 문의: ir.pr@eoflow.com

※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